



■ 오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전북·성남 “함께 4강 가자”

日 우라와·시리아 알 카라마 상대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성남 일화가 2007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도전한다.

작년 아시아 클럽축구 챔피언 전북은 19일 오후 7시30분 일본 사이타마 사이타마 2002스타디움에서 작년 일본프로축구(J-리그) 챔피언 우라와 레드와 8강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고 지난 시즌 K-리그 챔피언 성남은 작년 대회 준우승팀 알 카라마(시리아)와 맞붙는다.

전북과 성남이 8강에서 나란히 이기면 두 팀은 10월 준결승에서 맞대결한다.

지난 대회 우승으로 8강에 직행한 전북은 당연히 2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5일 K-리그를 치른 다음날 서둘러 일본 원정길에 올라 세트플레이를 집중적으로 가다듬고 골 결정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첫 원정 길이라 순탄하진 않다.

우라와는 AFC 조별리그 E조에서 시드니 FC(호주), 상하이 선화(중국)를 따돌리고 2승4무로 8강에 진출했고 J-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강호다.

지난 6월 A3챔피언스컵에서 성남을 1-0으로 제압했던 우라와는 이번 시즌 J-리그

그에서도 16승2무7패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지난 해 홈 경기 평균 관중이 4만5천명에 달할 만큼 팬들의 열기도 뜨겁다. 전북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전북은 그러나 지난 7월 열기훈을 내주고 울산에서 영입한 정경호와 임유환을 비롯해 만형 최진철, 율리피 대표팀 왼쪽 윙백 최철순, 최근 부상으로 회복한 김형범, 외국인 공격수 스테보와 제갈로 등 주전들을 전원 투입해 1차전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성남은 중동의 강호 알 카라마를 홈으로 불러들여 같은 날 오후 7시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15일 K-리그에서 전북전을 승리로 장식한 성남은 1위 자리를 탈환한 동시에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 뒤 2연승을 달리며 상승 모드로 돌아섰다.

알 카라마는 시리아 리그를 다섯 차례 제패한 강팀이지만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해 8강에 오른 성남의 김학범 감독은 “어렵게 올라온 만큼 아시아 클럽무대와 K-리그 정상을 모두 노리겠다”고 했다.

전북과 성남이 8강 고비를 넘겨 지난 해 전북-울산 전에 이어 2년 연속 K-리그 팀이 결승 길목에서 만나게 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8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2007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60kg급 결승에서 그루지아의 데이비드 베디나제(아래)가 일본의 사사모토 마코토의 허리를 잡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철 세계레슬링선수권 ‘은’

한국레슬링의 박은철(26·상무)이 이란의 하미드 수리안 레이한푸르에게 다시 무릎을 꿇었다.

박은철은 18일(한국시간) 새벽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2007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55kg급 결승에 진출했지만 레이한푸르에게 1-2로 패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졌다.

박은철은 2005년 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레이한푸르에게 패한데 이어 다시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박은철은 작년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땀다.

레이한푸르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며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전남여고 김찬미 ‘금’

경찰청장기 사격 여고부 10m 공기소총

김찬미(18·전남여고)가 제16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여고부 공기소총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김찬미는 18일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본선 및 결선 합계 502.9점(399+103.9점)을 쏘 정환희(500.6점·육군여고)의 추격을 뿌리치고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502.9점은 일반부 우승자인 유한나(501.3점·인천시체육회)를 뛰어넘어 여자부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 해부터 여고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김찬미는 최근 2007년 하반기 국가대표 선발전 공기소총에서 맹활약한 삼밭들 선배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처음 태극마크를 단 기대주.

광주 삼일중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시작한 김찬미는 아직 국제대회 경험은 없지만 뛰어난 집중력을 앞세워 기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앞으로 한국 여자 공기소총을 이끌 재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목포시청 대통령기 하키 결승행

목포시청과 한국체대가 제2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하키대회 여대일반부 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목포시청은 18일 충북 제천 청풍명당하키장에서 열린 여대 일반부 팽택시청과의 준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 결승에 올랐다.

전후반을 3-3으로 비긴 목포시청은 연장 시작 후 2분 만에 터진 박영순의 골을 잘 지켜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선 한국체대가 인제대를 6-1로 누르고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노리게 됐다. 한국체대는 장희선과 한혜령이 각각 2골씩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국체대-목포시청 결승은 KBS-2TV가 생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北 계순희 ‘한판승 여왕’

세계선수권 ‘이폰 트로피’ 수상

북한 유도계의 간판 선수인 계순희(28·사진)가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판승의 여왕’으로 공인받았다.

국제유도연맹(IJF)은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계순희와 남자부 티아고 카밀로(브라질)를 한판승을 가장 많이 거둔 선수에게 주는 ‘이폰 트로피(Ippon trophy)’ 수상자로 결정했다.

계순희는 이번 대회 57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4개 대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뤄냈다.

경기 내용도 6경기 중 4번을 한판으로 장식하는 등 307명의 여자 출전 선수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기량을 과시했다.

특히 결승에서도 이사벨 페르난데스(스페인)를 경기 시작 불과 1분여 만에 한판으로 눕히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남자 81kg급 금메달리스트 카밀로는 한술 더 떠 7번의 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장식해 남자부에서 ‘한판왕’이 됐다.

카밀로는 3분52초가 걸린 게오르그 바인두라쉬빌리(그루지아)와 4회전을 제외하고는 2분을 넘긴 적이 없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조용철 대한유도회 전무는 “2005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까지는 대회 베스트 플레이어와 이폰 트로피를 따로 시상했는데 이번 대회에는 이폰 트로피만 시상했다. 따라서 사실상 최우수 선수(MVP) 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p>개업·성업 안내</p> <p>구독신청 및 배달사건은 본사 판매국(062)220-0551</p>	<p>달성당 영암 시종면 만수리 933-1번지 금·은·보석·시계·도장·안경 최선의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61)472-8129</p>	<p>성민정보통신 우산동 서방시장 건너 세명약국 옆 휴대폰 신규번호이동,보상,기비변동 대표 양유웅 ☎(062)522-8975</p>	<p>다송혜센터 오치동 북부소방서사거리 비대장어차출발구이 계절별미: 하모, 회 한정식 ☎(062)266-9050</p>	<p>콩깍지소주방 회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뒤머지골목 모든 안주 무조건 6,000원 대표 최인화 ☎(062)381-3379</p>	<p>까메리노레스토랑 중앙동 신암교회 건너편 이탈리안 레스토랑 대표 황정운 ☎(062)655-0969</p>	<p>다량애참치전문점 상무지구 마스터즈호텔 옆 एको빌1층 9월 7일 OPEN ☎(062)373-7388</p>	
<p>황금부동산 광주 7동 999-116동사옥 LG에어컨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백형찬 ☎(062)973-9630</p>	<p>다미등뼈감자탕 윤남동 종로약국2층 한시랑병원입구 등뼈탕, 해물등뼈탕 대표 이원대 ☎(062)956-9282</p>	<p>은치과 의원 문흥동 삼호빌딩2층 치과의원 침장 김은희 ☎(062)251-2090</p>	<p>아이닥터안경점 신수오거리에서 우체국방향 사무실 이전 시은종중점(3원)원·우산(8원)·암산 ☎(062)223-4515</p>	<p>헬빙&아이티샵 남구 양림동 양림교회 옆 친환경생활용품, 각종식품, 컴퓨터, 조명, A/S 네트워킹, 카드, PC, 디지털, 주류, 신축배달 ☎(062)674-4442</p>	<p>명선 모텔 우산동 안보회관 뒷편 비디오, 전, 최신 시설 대표 정재영 ☎(062)525-3898</p>		
<p>보은상사 나주시 금성동 47-9번지 각종 가스기구 도·소매 '런나이 A/S 전문점' ☎(061)332-7900</p>	<p>영암스포츠타사지 영암읍 서남리 헬스장1층 목, 허리, 디스크 초·중·고 척추추출중 스포츠 및 패션,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1)471-9629</p>	<p>어가빠고시 영주동 먹지골목 각종 합어 전문(하모, 전어) 신지직송 ☎(062)375-4926</p>	<p>한마음공인중개사 윤남동 833-1번지 이마트, 신기, 토지, 개발지구, 투지상담 대표 주일수 ☎(062)572-3200</p>	<p>부대찌개문물점 문흥동 설타로아거리에서 오차원향 삼스 부대찌개 전문점 대표 나영곤 ☎(062)263-2882</p>	<p>예술식당 지산동 법원 승강장 옆 생고기, 갈비, 전, 생태탕 전문점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2)222-9998</p>	<p>태화루 방림동 방림1동사무소 옆 전통종교의 전문점 전하음문서 신축배달 대표 김재희 ☎(062)654-0022</p>	<p>닥터포닥터 오치동 오치사거리 코너 비만, 무릎관절, 허리보통용 신발전문 대표 오홍식 ☎(062)512-3221</p>
<p>아행성짜장분식 목포 신정동 구청앞 시장사거리 짜장, 분식 전문매달 대표 기연하 ☎(061)274-4224</p>	<p>화목식당 전남 영암군·영동면·영암읍·영암읍 추어탕 전문점 ☎(061)471-2456</p>	<p>(주)송영엔틱 광산구 필가동 호반리와 부영@사이 엔틱가구 제조전문, 공장직영 대표 노송영 ☎(062)972-4959</p>	<p>홍어한마리 윤남동 윤암시장 옆 삼합, 홍어탕, 홍어찜, 병어탕 낙지볶음, 홍어회, 튀김 전문 ☎(062)525-0013</p>	<p>고려인삼진상고 중흥동 인보화관사거리 전대동창화관 옆 WWW.kointec.org 건강유지, 체력보강을 필요로 하시는 분 ☎(062)521-3600</p>	<p>강강술래 중앙동 1034번지 한우암소, 한근(600g) 23,000원 삼겹살 가격으로 한우 암소를 구입드립니다. ☎(062)682-5231</p>	<p>남광주골프아카데미 학동 남광주현대(대)해송 구호백, 이트클럽 대형와이드스크린 실타용, 프로그램, 1:1 특 신규회원 수시모집 ☎(062)223-7080</p>	<p>용매골숯불갈비 매곡동 공무원연수원 앞 돼지갈비, 해물갈비, 숯불갈비 전문 단체 손님 환영 ☎(062)573-3393</p>
<p>우리약초&고려홍삼 목포시 신정동 1040-382번지 자연건강식품전문점, 약초재배관리갈비 대표 김재진 ☎(061)274-9915</p>	<p>실비식당 전남 영암군·영동면·매일시장입구 소갈비, 해장국, 비빔밥, 갈비탕 ☎(061)352-0388</p>	<p>싱크닥터 봉선동 사거리 봉선우체국 위 발바탕, 신발정, 신크, 맞춤가구 전문 대표 지경호 ☎(062)673-3119</p>	<p>영광골비적광점(산정갈비) 주월동 비스포 옆 전국 택배가능 대표 정다래 ☎(062)651-6452</p>	<p>대송마을광주점 광산구 쌍암동 호수공원 앞 대나무에 구운 축축하고 맛있는 고기!! ☎(062)974-4300~1</p>	<p>한라곰창전골·삼겹살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 맞은편 곰창전골, 삼겹살, 소마리국밥, 젓갈백반 대표 차정민 ☎(062)571-2374</p>	<p>남광주7080라이프클럽 학동 남광주현대(대)해송 구호백, 이트클럽 넓은 공간, 아늑한 분위기 옛 추억과의 소중한 만남의 장소 ☎(062)223-7080</p>	<p>갈비어천가 매곡동 대주피오리입구 삼거리 코너 갈비, 삼겹살 (3,300원) 등갈비 단체 손님 환영 ☎(062)574-0792</p>